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축일
제1독서 : 집회 3, 2-6. 12-14
제2독서 : 골로 3, 12-21
복 음 : 루가 2, 41-52

숲정이

"사랑은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
완전하게 합니다"
(골로 3, 14)

강 론

아버지의 집

여혁구 신부/사목국 부국장

삶의 여정 가운데 가정이 가는 길은 그 무엇에 비길 수 없이 중요한 길이다. 실제로 "하느님으로부터 나신 하느님, 빛으로부터 나신 빛"이신 예수님께서도 한 가정을 통하여 이 세상에 오셨고 그 길을 걸으셨다. 이 길은 함께 걷는 길이며, 아주 특별한 길로, 모든 사람이 각각 하나이듯이 하나만 가질 수 있는 길이고, 인간이면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길이다.

그런데 이렇듯 중요한 가정의 길이 오늘날 변색되거나 단절되어 막혀 버리고 있다.

무엇이 과연 가정의 길을 차단시켜 혼돈 속에 빠지게 했는가? 그것은 바로 말씀의 육화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가정에 하느님을 모셔 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정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여러 유형의 도전을 받고, 또 겪게 된다. 마치 목적지를 향해 떠나간 배가 항상 잔잔한 파도위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역경과 고난의 폭풍우를 만나듯 삶의 여정에서 어려움과 환난을 겪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하느님을 배제한 채, 가정의 삶을 꾸려 나가고 폭풍우를 헤쳐 나가려는 모습은 마치 하느님을 젖혀 두고 사람들끼리 일치를 이루려다 실패한 바벨탑의 모습을(창세 11장) 재현는 꼴이 되는 것이다.

성가정이 되고자 한다면, 언제나 하느님의 자리가 중심에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영원한 아버지 하느님을 망각하면 누구도 참다운 부모나 자녀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안에서 서로를 받아들일 때만이 성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몰랐습니까?" (루가 2, 29)

소 리

사진 좀 걸지 말자

대통령 당선자에게 바라는 것이 딱 한 가지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부패한 정치의 선진화도, 부도난 국가경제 회생도, 남북 관계 개선도, 국가의 백년지대계인 교육 개혁도, 망국병에 이른 지역 감정 해소도 아니다. 이런 일은 대통령 혼자 할 수 없을 뿐더러 혼자 해서도 안되는 일이다. 국민적 합의도출과 엄청난 비용이 따르는 일이다.

그러나 내가 바라는 것은 경제도 어려운 때에 돈 한 푼 들지 않고 대통령 당선자의 결단만으로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는 일이다. 다름이 아니라 관공서마다 걸어놓은 대통령 사진 좀 걸지 말자. 높은 벽에 매달려 국민들을 내려다보는 그 거만한 사진을 걸지 말자는 얘기다. TV가 귀하여 나라의 어버이이신 대통령을 몰라 보는 불충한 국민이 있을 때라면 몰라도 매일 뉴스 시간마다 지겹도록 보는 대통령 얼굴을 관공서마다 모셔두고 우러러 볼 필요가 있는가. 높은 벽에 매달려 국민들을 내려다보는 대통령에게 애정과 존경심을 느낄 국민이 있을까.

그리고 사진 밑에 걸려 있는 국정지푠지 뭔지 하는 것도 치워버리자. 그걸 보고 국가의 나갈 바를 알고 국민이 해야 할 바를 깨우칠 국민이 얼마나 되겠는가. 그리고 그 지표가 추진되고 있다고 믿는 순진한 국민이 얼마나 있는가. '총화단결'이 이루어지고 '정의사회가 구현'되고 '깨끗한 정부와 튼튼한 경제'가 이루어진 적이 있는가. 한 번도 없지 않은가. 그러니 아무 쓰잘데기 없는 사진과 지표를 없애자. 권위적인 모습과 구호행정부터 없애자는 말이다.(인)

숲정이 산책

"두 표정"

성서의 오솔길

예레미야서

박찬길 신부/사목국장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비참한 시대에 활약했던 예언자로서 이사야보다 한 세기쯤 뒤인 기원전 650년경에 아나돗 사제 가문에서 태어났다. 온순한 성품에 고독을 즐기고 소박함을 사랑했던 예레미야는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아 역사상 가장 혼란한 시기에 유다왕국의 정신적 길잡이가 되어야 했다. 기원전 627년부터 586년까지, 그러니까 아시리아 대제국을 넘어뜨리고 동방의 패권을 장악한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던 해까지 활약하였다. 예레미야는 약속의 땅이 주민 없는 황무지가 될 것을 예고하는 산 상징이었다. 그는 평생 결혼도 하지 않고 자식도 두지 않았다(16, 2이하).

예레미야는 당시의 타락한 사제들의 형식적인 경신례, 부정 부패와 우상숭배를 고발하고 에집트와의 동맹을 반대하고 바빌론에 항복하기를 권함으로써 성전모독자와 민족반역자로 몰리게 된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예언은 빠짐없이 이루어진다.

예레미야서는 일종의 선집(選集)이다. 여러 군데에 자서전 형식의 글들이 나오고 '예레미야의 고백'이라 일컬어지는 대목들은 예언문학의 걸작으로 꼽히고 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는 당대의 종교적 정치적 상황을 알려주는 역사부분이 다른 어느 예언서보다 많이 등장한다. 그 태반이 예레미야의 서기(書記) 바룩의 저술이라고 여겨지고 있다. 그밖에는 예레미야의 설교를 싣고 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나약함을 의식하였고, 자기를 붙들어 주시는 하느님의 현존을 생생하게 체험하였다. 이러한 체험으로 예레미야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예배, 인격적 예배를 일평생 주장하였으며, 그의 설교의 전체 주제도 이것이었다. 하느님은 사람에게 '당신을 알아보는 마음'(24, 7) 외에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신다. 예레미야는 하느님의 구원행위는 당신의 은총으로 인간의 마음을 변혁시키시는데 있다고 강조한다. 하느님의 은총으로 인간의 내면 전체가 변화될 때 비로소 인간은 하느님의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사상을 우리는 예레미야서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구세주 강생 2000년 대희년

1997년 예수 그리스도의 해 임에게

아까운 것 없이 무엇이나 바치고 싶은 이마음
거기서 나는 보시(布施)를 배웠노라.
임께 보이고자 애써 깨끗이 단장하는 이마음
거기는 나는 지계(持戒)를 배웠노라.
자나깨나 쉴사이 없이 임을 그리워하고
임곁으로만 오는 이마음
거기서 나는 정진(精進)을 배웠노라.
천하에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오직 임만을 사모하는 이마음
거기서 나는 선정(禪定)을 배웠노라.

임. 언제 들어도 마음 설레고, 따뜻한 고동 가슴에 번지는 말이다. 춘원 이광수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무엇이나 바치고 싶고 단장하고 싶고 임 곁으로만 다가가며 더욱 사모하게 되는 마음에서 자신이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를 보았다. "자나깨나 쉴 사이 없이 임을 그리워하고 임곁으로만 오는 이마음"은 "사랑하는 나의 임 보셨나요?"라고 외치며 임을 찾아헤매는 구약의 아가서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

"사랑하는 나의 임 보셨나요?" 이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기도 하고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기도 하다. 바로 엊그제 그분의 탄생 사건에서 보았듯이, 우리의 임은 쉴 사이 없이 우리를 그리워하고 우리, 곁으로만 오고 싶어서 사람이 되시었다. 그리고 당신의 임인 우리에게 무엇이나 다 바치고 싶은 마음에서 죽기까지 하신다.

지난해는 특별히 임께, 예수님께 바쳐진 해. 세례로 나를 깨끗이 단장하시어 당신의 임으로 삼아주신 그 사랑을 감사하며 임 향한 믿음을 돈독히 하고 임과 하나 되는 기쁨을 체험하도록 배려된 시간, 이제 그 끝에 서 보니 아쉬움이 크다. 죄송함도 크다. 그러나 사랑은 이런 것일까? 임은 말없이 우리에게 "새해"를, 1998년을 또다시 내놓으시니……

2000년까지 2년 3일 남았습니다.

메종 프랑세스 메이크업
방학특강 학생 특별 할인
이미지 메이크업(자기연출)
피부관리 전문
이 지 연(데레사)
덕진광장 앞
☎ (0652) 251-1210~1

서울 가정의학과 의원
치질 전문 치료
입원하지 않고 수술 치료
무통, 초음파, 레이저
전문의 : 이 상 재(베네딕도)
전주 덕진광장앞
☎ (0652) 75-0550~1

완구 종합 전문 매장
전주완구도매센터
리틀타익스, 레고, 영실업, 미미,
전동차, 발육기구
각종 고급 완구 도·소매
다가동 ↔ 도청(삼성생명 옆)
이 근 초
정 명 희(아 녜 스)
☎ 84-2795, 84-8561

김회민 정형외과
가톨릭 공제조합 지정병원
김 회 민(루가)
남전주 전화국 앞
(구 영광주유소 자리)
☎ 226-7600~1

잠 깐

새 시험지

수업이 끝났을 때 한 아이가 떨리는 얼굴로 내 책상앞에 다가왔어. "
제게 새시험지를 한장 더 주시겠어요? 선생님. 이걸 망쳤거든요."
나는 온통 때묻고 얼룩진 그애의 시험지를 받았어.
그리고 그애의 지친 마음에 미소를 지어주었지.
"이번엔 좀 더 잘해보려므나!"
한해가 끝났을 때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하느님의 어좌에 나아갔어.
"주님, 저에게 새로운 한해를 주시겠습니까? 이번 한해를 망쳐버렸거든요."
그분은 온통 때묻고 얼룩진 나의 지난해를 받으셨어.
그리고는 새로운 한해를 주셨지. 아주 깨끗하고 하나도 때묻지 않은,
그리곤 나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지는 미소를 주셨지.
"이번엔 더 잘해보렴. 내 아이야!"

교구 · 제 단체 소식

1. 교구신년하례식 : 1월 2일(금), 오전 10시 30분, 전동성당
2. M.E 70차 주말 : 1월 2일(금)~4일(일), 천호 피정의 집
3. 부제품 예정자 피정 : 1월 3일(토)~31일(토), 천호마을 예수회 영성사목연수원
4. 성모기사회 월례회 : 1월 3일(토), 오전 10시, 효자동 성당
5. 사랑의 다리 신년하례미사 : 1월 5일, 10시 30분, 가톨릭센터 3층
   주례 - 이병호 주교(미사후 신년잔치 있음)
6. 제20차 선택주말 : 1월 9일(금)~11일(일), 나바위 피정의 집
   신청 - 교구청 교육국, 85-0041, 대표 85-3637
7. 무주구천동 리조트미사 : 매주일 오전 6시 30분, 리조트입구 왕성가든 여관
8. 조촌동성당 전화번호 변경 : 주임신부 451-1402, 사무실 451-1401
   수녀원 451-1405, FAX 451-1404
9. 전주평협 제23차 정기총회 : 1월 2일(금) 오후 1시 30분, 전동성당 교육관

성소 모임

수 도 회	시 간	장 소	문 의
동정성모회(전주)	매월 셋째주 오후 2시	금암동성당수녀원	(0652) 253-0325
동정성모회(이리)	매월 셋째주 오후 2시	이리성모병원	(0653) 841-0714
인보성체수도회	매월 넷째주 오후 2시	중노송동 본원	(0652) 84-3231
바오로딸수도회	매월 첫째주 오후 2시	바오로딸 서원	(0652) 252-3398
살레시오여자수도회	매월 셋째주 오후 2시	정읍연지동성당수녀원	(0681) 33-2578
예수성심전교수녀회	매월 셋째주 오후 2시	삼천동성당 수녀원	(0652) 226-3487
부산성베네딕도수녀원	매월 넷째주 오후 2시	호성동성당 수녀원	(0652) 244-0094

요십이 (1273) 김명오

원 아 모 집

대상 : 92년 3월 1일~98년 2월 28일 출생자녀
특징 : ① 몬테소리교육 ② 종일반 운영 ③ 저소득층 자녀혜택 ④ 차량운행
접수 : 팔복 성모어린이집
전화 : 212-1618

해나라놀이방

대상 : 0세~취학전 어린이
오전반, 종일반, 시간제
저소득층 자녀 혜택, 차량운행
삼천동 우성주택 2동 116호
☎ 227-5515
호) 012-1051-2930
박 명 선(젬마)

전주문구센터 NEO DADA

1층 악세사리, 팬시
2층 학용품, 사무용품, 컴퓨터소모품
3층 화방용품, 제도, 측량전문용품
전북대앞 본점
원수관(야고보) · 심경이(마리아)
☎ 77-0079 FAX 77-0720

이지문구 유통 상사

에버그린 전북대리점
모 나 미
팬시, 문구, 수입필기구 전문 도매 유통
단체, 납품 및 문구점 개업상담 환영
대표 : 정 상 남(요한)
이사 : 전 현 배(다두)
군산시 월명동 18-23(명산동 사거리)
☎ (0654) 468-8894, 63-5048

청솔떡백화점

각종 떡의 모든 것. 주문배달
이 종 학(요 한)
이 승 철(모이세)
남부시장 매곡교↔전주교 중간
☎ 83-0275, 84-0275

LG 에어컨 예약

98년 신제품 15% 할인+10개월 무이자 할부
기본 설치비 무료+ 사은품(선풍기)
할부 대금은 4월부터 불입
원 승 연(도밍고)
☎ (0652) 241-2000

▣ 서전주지구 본당소식 ▣

삼천동

주임신부 225-0397 사 무 실 225-0396 주임신부 오 성 기
F A X 222-4954 수 녀 원 226-3487 사목회장 심 성 택

⊙ 아기 예수님의 축복을 기원합니다.

1. 모임 : ① 전례부, 홍보부 – 교중미사 후
② 레지오 꾸리아 – 4일(주일) 교중미사 후
2. 본당 성탄예술제 : 오늘 오후에 있음. 후 1시 30분 – 초등부 예술제
후 4시 – 중고등부 예술제, 6시 30분 – 레지오 예술제
3. 가정 성서 모임 : 성탄주간에 구유에 성서모임수첩 봉헌요망.
4. 고백 성사 : 미사 전후 20분씩 볼 수 있음.
5. 송년 미사 : 31일(수) 후 7시
6. 새해미사 : 1일(목) 전 6시, 10시 ※ 의무미사임.
7. 본당 제단체 : 본당 제단체에 가입요망
8. 교무금 월납제 : 교무금 신립과 완납 부탁드림.
9. 특별 헌금 : 금주봉헌자 – 2명, 530,000원
10. 금주 전례 : 해설 – 이점열, 독서 – 하영성(이보)부부
봉헌 – 이정열(안토니오) 가정

화산동

주임신부 221-9843 사 무 실 221-9842 주임신부 이 성 우
F A X 221-9842 수 녀 원 225-3675 사목회장 서 동 호

⊙ 하느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의 길을 걷는 이는 모두 복되도다.

1. 금주 모임 : ① 성모회 – 낮미사 후
2. 음악기초교실 : 30일(화) 후 8시 30분
3. 평화의 날 미사 : 전 10시, 후 7시 30분
4. 사목회 : 1월 3일(토) 후 7시 30분
5. 차주 모임 : ① 꾸리아 – 전 9시
② 울뜨레야 – 낮미사 후
6. 청소 봉사 : 1월 3일(토) – 신비로운 장미Pr.
7. 폐품 정리 : 1월 3일(토) – 바다의 별Pr.
※ 폐품을 가져오시기 어려운 가정은 사무실에 접수 바람.
8. 금주 전례 : 새벽 – 유희정, 낮 – 이영순, 저녁 – 이영숙
9. 차주 전례 : 새벽 – 곽순옥, 낮 – 홍정의, 저녁 – 김영종
10. 본당에 납부금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신동

주임신부 74-9261 사 무 실 74-9260 주임신부 오 현 택
F A X 74-9260 수 녀 원 74-9262 사목회장 유 춘 웅

⊙ 오늘은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입니다.
새해에도 하느님 축복을 많이 받는 성가정이 되시길 빕니다.
⊙ 밀린 교무금을 정리하시고 98년도 교무금을 신립바랍니다.

1. 금주 모임 : ① 애령회, 방주회 – 공식미사 후
② 청년공동체 – 저녁미사 후, 2회의실
2. 주간 모임 : 엠마우스회 – 29일(월) 후 7시, 4회의실
3. 차주 모임 : 요아킴회, 안나회 – 공식미사 후
4. 축 ! 혼인 재신식 : 28일(금주) 공식미사중
5. 신년미사(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 1일(목) 전 10시 ※ 의무축일임
6. 부제품 예정자 피정 : 박성문(요한) 신학생, 1월 3일~31일
7. 성탄행사에 수고하신 성가대, 교리교사회, 제대회, 학생회 등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8. 전입가정 환영 : ① 김광심(글라라) T. 254-9640, 비사벌A 102-406
② 김현옥(율리안나) T. 253-3612, 신일A 104-1212
③ 김영순(데보라) T. 252-3097, 현대A 102-1401
④ 김경숙(율리안나) T. 74-8734, 남양A 202-104
⑤ 방미경(로사) T. 77-7198, 신일A 102-707
9. 부지헌금 신입 감사 ! : 이상철 5만, 이순자 5만, 심주효 10만
강범희 30만, 이병길 50만, 김영무 20만 누계 – 281,298,180원
10. 독서 : 금주(새벽) – ① 김진헌 ② 오영심, 차주 – ① 송주창 ② 임경선
(공식) – ① 김경범 ② 조경자, 차주 – ① 김석철 ② 오영순
11. 미사 안내 : 금주 – 찬송하올 모후Pr., 차주 – 하자없으신 모후Pr.

용머리

주임신부 88-3872 사 무 실 87-0441 주임신부 현 유 복
수 녀 원 81-0441 사목회장 이 규 세

⊙ 하느님 두려워하며 그분의 길을 걷는 이는 모두 복되도다.

1. 모임 : ① 꾸리아 – 오늘 공식미사 후
② 요셉회, 사라회 – 오늘 공식미사 후
2. 밀린 교무금 서둘러 정리 바랍니다.
※ 98년 교무금 신립 바람.
3. 성당 새 의자 대금 : 1인당 80,000원입니다.
4. 미사 시간 : ① 송년 미사 – 31일 후 10시
② 평화의 날 – 1월 1일 전 10시 30분
5. 금주 전례 : 해설 – 박연식, 독서 – ① 하진호 ② 이현주
6. 청소 봉사 : 전신자 구역별로 모두 참여해 주십시오.

효자동

주임신부 223-3824 사 무 실 223-3821 주임신부 서 정 현
수 녀 원 223-3822 F A X 223-3821 사목회장 임 해 건

⊙ 본당 선교계획을 실천합시다.
※ "남에게 주어라. 그러면 너희도 받을 것이다" (루가 6, 38)
※ 이웃사랑 실천회에서는 기금 모금을 위한 신립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 사무실에 접수바람.

1. 금주 모임 : ① 전례해설단모임 – 28일(일) 10시 30분미사 후
② 꾸리아 – 31일(수) 전 10시
③ 성모기사회 – 1월 3일(토) 전 10시
2. 차주 모임 : ① 성체봉사자모임 – 1월 6일(화) 전 11시
② 구역봉사자모임 – 1월 7일(수) 전 10시 30분
3. 송년 미사 : 31일(수) 후 10시 ※ 새벽 6시미사 없음
4. 평화의 날 신년미사 : 1월 1일(목) 전 6시, 10시 30분
5. 이웃사랑 기금 내주신 분 : 이동섭 백만, 김우규 십만, 안동환, 신동섭 십만, 김정기 오십만, 이양례 오만, 김정례 이만, 이영숙 이만, 파티마의 모후 십만, 박금순, 이옥주 삼만, 정유덕 이만, 이영우 이만, 김후순 이만, 나병희 사만, 류점호 이백만, 최기식 오만, 성물방 이백만, 황금궁전 오만, 신부님 이백오십만, 이강배 십만, 양복례 일만, 박점암 일만, 주소영 오만, 최순녀 십만, 이복례 이만, 한영희 일만, 신필식 이십만, 황은옥 삼십만, 하늘의문 이십만, 박영자 오십만, 정학모 삼만, 김동희 이만, 백성숙 삼만, 문복순 이만
익명 계 – 일백사십오만천(19일 전 현재)
※ 감사합니다.

효자우전

주임신부 221-3712 사 무 실 221-3711 주임신부 김 순 태
보좌신부 226-0443 수 녀 원 223-0715 보좌신부 강 호
F A X 226-1044 사목회장 김 규 완

⊙ 새해에는 전신자 가정에 하느님의 축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 성전 신축을 위한 묵주기도 100만단 봉헌 :
소계 – 5,680단 누계 – 832,025단
⊙ 성전신축을 위한 2차헌금 실시

1. 금주 모임 : ① 승리의 여왕Cu. – 공식미사 후
② 여성분과회 – 2일(금) 10시미사 후
③ 사목회 – 저녁미사 후
2. 미납된 신축헌금, 바자회 식권대금, 교무금을 완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폐품, 신문, 박스, 공병, 우유팩 수집 안합니다.
4. 1월 1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미사 : 전 6시, 10시 30분
5. 지속적인 성체조배 교육 : 29일(월) 후 7시, 지하성당
6. 차주 : 천주의 모친Cu., 신학생 후원회 가입과 회비 접수합니다.
7. 금주 전례 : 해설 – 이한은, 독서 – ① 엄정준 ② 임효정
봉헌 안내 – 김응준, 김옥자 부부
8. 차주 전례 : 해설 – 김낙완, 독서 – ① 권호상 ② 허선영
봉헌 안내 – 임낙규, 서쌍옥 부부